

쉽게 사는 세상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가끔 육필로 원고지 한칸 한칸을 매꿔나 가던 시절을 생각할 때가 있다. 그 당시는 한뼨 쓴 원고를 고친다는 것이 여간 수고롭지가 않았다. 더구나 응모작품일 때는 심사위원이 쉽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하므로 글자 한 자 한자에 정성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단편소설 한편을 정사하는 데도 이틀을 잡아먹었다. 한편을 다 쓰고 나면 손가락에 힘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진이 빠져 갔다. 그에 비하면 요즘 컴퓨터로 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수술을 할 환자가 있었던 병을 알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어렵게라도 찾아야 한다. 정 사람이 있다면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 가게 해야 한다. 새우젓 국물 맛이 어쩐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렵게 물어봐서 잘못 입력된 글자 찾아 고치듯 다시 협상을 하는 꼴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정밀 컴퓨터 몸체까지 모두 빼앗기고 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지 않을까.

이따금 컴퓨터 전원을 끄고 빛바랜 원고지를 마주하고 있을 때가 있다. 깊이 생각하여 쓰고 싶을 때, 다시 응모할 심정이 되고 싶을 때,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정신의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그럴 때 나는 글을 쓰는 일에 보다 정성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내 생애 모든 시간을 그렇게만 채울 수는 없다. 속도와 능률을 필요로 할 때도 있으니, 그렇다고 해도 원고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정신도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무용한 것이라고 버려버리는 데에 있다.

병은 늘 한 곳으로 치우치는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포함한 오늘날의 세상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서 극복하고 성취하는 재미가 더 큰 것인데.



정동수 <소설가>

쉬운 것만이 좋은 것 아니다 뿌리 튼튼해야 결실도 많은 법

“무분별 생명복제 규제하자”

생명윤리학회 ‘1999년 서울선언’ 발표 의협 “인간복제 목적 연구 자체 징계”

“사람이 어떤 일에만 치중하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을 모두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대단한 장애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말한다” (슈타이너)

자기의 입장이나 집단의 입장을 절대화하여 거기에서 사물을 보려고 하면, 자기 편리한 대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독단적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견(見)’이라고 한다. 악견(惡見) 사견(邪見) 편견 선입견 등이 이를 말한다. 그리고 불교는 이런 ‘견’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20세기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복제는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를 무시한 일부 학자들의 악견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인류 발전은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뤄져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본래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생명복제와 의료윤리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창립된 생명윤리학회(회장 박이문·포항공대 교수)가 지난달 27, 28일 서울대 호암생관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첫 워크숍을 열었다. 그리고 30일에 ‘인간복제 복원을 위한 모든 연구와 시술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1999년 서울선언’을 발표한 것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

들이 ‘정견(正見)’을 찾고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생명윤리학회는 생명복제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학자들과 윤리학을 연구하는 국내 철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단체. 이번 워크숍에서 토론된 내용을 종합하면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이 반대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생명복제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를 심의 감독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고, 또 이를 연구하는 전문기관 설치를 촉구했다. 인류를 위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위험성과 윤리문제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이번 워크숍과 ‘1999년 서울선언’은 생명복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16일 ‘생명복제 기술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독특한 형태의 회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인간복제 복제를 목적으로 인간의 체세포나 생식세포 복제 연구 등을 금하는 등의 윤리지침을 발표하고 인간복제를 목적으로 연구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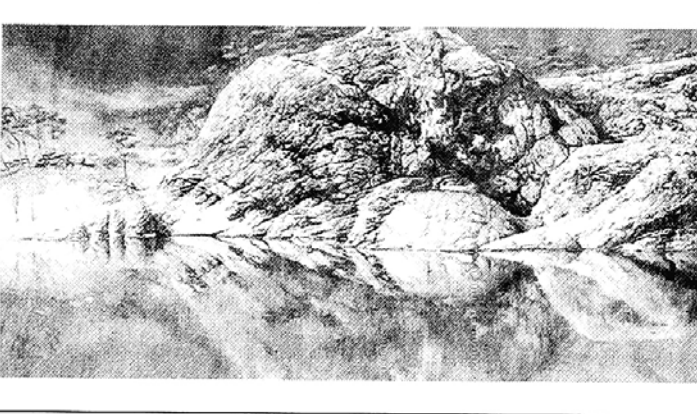
■ ‘1999년 서울선언’ 내용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식량 증산 등 인류 복지에 도움을 주는 면도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생명복제 연구에 관해서 검토하고 감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뜻을 모아 선언한다.

- 1. 우리는 인간복제와 인간복제에 관한 연구를 금지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생명복제 실험과 연구에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3. 우리는 생명복제에 관한 실험과 연구를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검토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정부에 이를 위한 전담 기구가 설치되기를 요청한다.

이전 불교계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고 활발한 논의를 벌여야 할 때다. 휴정스님은 “현실에만 맹종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무분별한 생명복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를 모두 무시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 6가족 12명 신장기증 릴레이

만성신부전증에 걸린 환자들의 가족들이 잇따라 보은의 장기 기증을 해 6가족 12명이 수술을 받는 국내 최대 ‘사랑의 장기기증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장기 릴레이가 처음 시작된 것은 한 목사가 1년째 복막투석으로 생명을 이어오던 한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면서부터. 이에

감사한 환자의 남편은 다시 다른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이 환자의 손아랫동생은 또 다른 환자에게. 그 환자의 부인은 다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한 것이다. 그리고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부인은 7년간 투병생활을 해온 환자에게 3월27일 신장을 이식해 주었고,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부인도 신장을 기증. 4일 뒤인 31일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젊은이에게 신장을 이식함으로써 새 생명을 찾게 해주었다. <출요경>에 “제 몸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을 건주라”는 말씀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틀림없다. 한명우 기자

‘동강’ 그림 세워보면 합장하는 모자상

동강 이러한 계곡을 그린 김재홍 씨의 근작. 옆으로 세워 보면 합장하는 인물의 형상이 나타난다.

생활정보

민방위교육 45세까지

정부와 여당은 민방위대원 편성연령을 내년부터 50세에서 45세로 단축하고 교육기간은 올해부터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지문 △발행일 △발급기관명 등 7개 항목을 담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16대 총선 전인 2000년 3월까지 17세 이상 인구 3천5백만명에게 발급키로 했다.

“화화나무 받아주세요”

학국경제신문과 주택은행이 8~9일 화화나무를 무료로 나눠준다. 이번 행사는 양사(社)가 공동으로 벌이는 ‘새천년 새희망 화화나무를 심자’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8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9일에는 충청로 한국경제신문 사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눠준다. (02)3604-785

운전면허증 우편교부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운전면허 최종 합격자 중 희망자에게 한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우송해 주는 ‘운전면허증 우편교부제’ 실시를 시작했다. 희망자들은 자신이 최종 합격한 면허시험장에서 합격당일 우편요금(1170원)을 내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주소를 적어내면 된다.

김포공항 주차비 인하

김포공항 주차요금이 이달부터 최고 80%까지 인하됐다. 한국공항공단은 하루 4시간 이상 주차시키는 승객이 많아 국제선 1.2층사의 일반 주차장에 장주차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차 주차료는 24시간 이용시 4만원에서 8천원으로, 48시간 이용시 8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낮아진다.

22일 새벽 별뿔별 보는 날

22일 새벽은 별뿔별 보는 날이다. 이날 해뜨기 한두 시간쯤 일찍 일어나서 동쪽 하늘을 보면 한 시간에 열개 남짓한 별뿔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겨문고지리 유성우’로 알려진 이 별뿔별들은 무척 밝고 빠른 것이 특징. 또 화성은 4월 동안 밝기가 점점 밝아져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가장 밝게 빛을 낸다.

21세기 NGO의 역할

EBS-TV는 4월 ‘일요 초청 특강’을 마련. ‘21세기 NGO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 분야별 핵심 지도자를 초청해 핵심 이슈를 듣는다. △11일 경제분야와 리더, 강철규(경실련 중앙 위원회 위원장) △18일 환경분야와 리더,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5일 언론분야와 리더, 김주연(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초중·중졸·고졸 (4·5·8월 실시) 검정고시. 좋은 교재·질높은 교육·체계적인 학습관리 시스템. 검정고시에 대한 기술 호문한 슝 이야기 많습니다.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선분/비밀보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며 꽃방울 피웠다. 굶고온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숨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뒷편인 시계에서 5분 환원빌딩 502호. 대표전화: (02)2275-5592~3 핸드폰: 018-277-5592

순수한 명연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0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발마타(眞本) 그림, 佛자그림 (수액·차단) 특별보사! \* 전문 신성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영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심야전력기기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기를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시골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자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력기 보일러, 심야전력기 온돌, 심야전력기 온수기, 심야전력기 온풍기.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문의전화 02)883-7400(대) 영업부: 02)877-6090 FAX: 02)876-3378